

# 향기로운 예배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성종(윤현영), 공인석(김명숙), 김근봉, 김길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득), 김종진(한안나), 김춘화, 박가영, 박종삼(이명원), 방석태(차목자), 석형기(이희순B), 윤정호(유옥자), 이명희, 이상규, 이상현, 이일로, 장명원(김옥자), 장윤주(김현진), 정영심, 정옥순, 조규영, 채만기(장은주), 재희춘, 천세력(염영분).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김근봉, 김길자, 김영숙,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득), 박종삼, 방석태, 방현욱, 백경자, 송다해, 유호근(손명화), 이명희, 장명원, 장윤주, 정옥순,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현금

김광호, 김병율(이영숙), 김우근(윤지성), 박부웅(최귀남), 신점순, 이강우, 이미항, 이영순, 이지은, 이형욱, 정기성(심순옥), 채명연, 황성연(홍금옥), 무명.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정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율,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이총호,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무명.

##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47주 : 고린도전서 11장 -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전서 11 - 15장			
주 일	고린도전서 16장 - 고린도후서 2장	목요일	고린도후서 9 - 11장
월요일	고린도후서 3 - 5장	금요일	고린도후서 12장 - 갈라디아서 1장
화요일	고린도후서 6 - 8장	토요일	갈라디아서 2 - 4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출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온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례	이송이, 최유경
교육전도사	할 렐 루 야 : 김한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호 산 나 : 김안나 엔 젤 : 이난수
지휘자	상혜윤	
반주자	피아노 클라리넷 플룻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박진숙 이난수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록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녀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11. 16. 토일 예배 설교

### 위대한 감사

설교 : 이진우 목사

본문은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털어 놓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던 선지자의 입에서 위대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과연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1.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1) 본문 3장 17-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줄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 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 방금 목격한 환상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을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내 창자가 훤헬었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감사입니다.

3)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복사에 감사하는 자요, 역경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원래 “감사”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곤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믿음의 감사가 피어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 2. 최악의 상태에서도 소망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1) 하박국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통치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란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기도하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 이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그 백성을 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그 대적을 진멸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 이제 하박국은 3장에 들어와 절정적인 노래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영원한 속박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곧 부흥케 되며, 성취케 될 것을 소망하며 선지자는 큰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3) 소망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소망은 어떠한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블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혹시 비관하며 낙심하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야 말로 위대한 믿음과 소망을 불들고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절망을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3. 최악의 상태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1)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극한 가난과 일이 바싹 마르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뼈가 녹아내리는 듯 한 고통이 있었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감사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 본문에는 하나님에 관한 네 가지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넷째,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언덕을 넘고 넘어 저 높은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3)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가 당한 고생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물을 거두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 속에 기적이 꽂피고, 감사 속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풍성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47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 현 교 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http://www.sunghyeon.or.kr)



